신선식품·육류 매대 '텅텅'… 기약없는 휴업에 업체 '한숨'



영업 중단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강서본점의 풍경. 텅 빈 매대에 상품 수급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김서현 기자



르포 | 홈플러스, 또 다시 '셧다운'

사람들은 쇼핑카트를 끌고 있었지만 매대는 텅 비어 있었다. 전 점포 운영 중단을 하루 앞둔 홈플러스는 할인 상품을 건지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상품이 빠진 매장의 풍경은 삭막했다.

26일 오전 찾은 홈플러스 강서본점은 여타 대형마트들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한창인 김장철을 맞아 할인 행사를 쏟아내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시즌 상품은커녕 일반 상품조차 찾아보기 어려웠다. 거의 모든 매대가 비었고 몇 명의 직원만이 매장을 지키고 있었다.

홈플러스는 27일부터 본사와 마트 전 점포의 운영을 중단한다. 26일 온라인 배송을 전면 중단한 데 이은 것이다.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6일까지 점포 영업을 중단했다가 재개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재개장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운영 중단 소식을 알린 전날 인수의향자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황을 반전시킬 가능성도 생겼다.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홈플러스 전체 인수를 희망하는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던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농성을 중단하고 성명을 냈다. 노조는 "홈플러스의 생존은 홈플러스 노동자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외주 노동자, 입점업주의 생계도 걸려 있다"면서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 의향자의 등장으로 정상화 가능성이 열렸지만 영업 중단을 앞둔 현장에서는 경영난의 여파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오늘부터 본사·마트 전 점포 중단
인수 의향자 등장에 재기 기대감
노조, 농성 중단하고 정상화 협력

할인상품 기대로 방문한 고객들
진열 상품 하나도 없어 구매 못해
입점업체 1층 '북적' 3층 '텅텅' 대조
직원 급여·상여 체불상태 '여전'

영업 중단을 하루 앞둔 홈플러스는 거의 모든 상품을 매대에서 거둬들인 상태였다. 신선식품 코너에는 키위와 사과 등 두세 종류의 과일과 당근 등 일부 채소만 남아 있었고 육류·수산 코너에서는 단 하나의 상품도 찾아볼 수 없었다. 냉동식품 코너도 마찬가지였다. 현장에서 만난 한 직원은 본사 방침을 이유로 인터뷰를 거절했다.

델리 코너에는 식자재 소진을 위한 일부 메뉴만 놓여 있었고 베이커리 코너인 몽블랑제에는 케이크 한두 개만 남아 있었다.

매대는 비었지만 점포를 찾은 사람들은 많았다. 운영 중단 소식을 듣고 남은 상품의 할인을 기대하며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고 소식을 접하지 못한 채 방문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진숙(66)씨는 "내일부터 운영을 중단한다는 뉴스를 보고 할인 상품이 있을까 해서 찾았다"면서 "상품이 하나도 남지 않아 구입한 게 없다. 즉석식품 정도만 사려 한다"고 말했다.

조진영(40)씨는 운영 중단 소식을 모른 채 방문했다. 조씨는 "열흘 전쯤 왔을 때는 지금 같은 풍경이 아니었다"면서 "오늘 와보니 상품이 하나도 없어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사정이 좋지 않아 닫는다고 하니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비식품 코너에 남은 상품은 그릇과 의류, 문구류, 차량용품 일부뿐이었다. 그나마 남은 상품도 가짓수가 많지 않았고 곳곳의 매대가 비어 있었다.

가전제품 등 일부 비식품 코너는 지난 8월 13일 운영을 재개한 시점부터 사라졌다. 홈플러스는 재개장 당시 소요 자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 방식을 조정했다. 복층 매장을 단층화하고 식품과 자체브랜드(PB) 상품, 회전율이 높은 생필품 중심으로 매장을 꾸리면서 비식품 상품군을 대폭 축소했다.

입점업체들은 운영 중단 소식에 시름이 깊어졌다. 다만 층별로 상황은 다소 달랐다. 접근성이 좋고 입점업체가 몰려 있는 1층은 여전히 상품을 살피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어 활기가 돌았지만 2층과 3층은 사정이 달랐다. 다이소와 푸드코트가 있는 2층은 그나마 오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3층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고 점원마저 자리를 비운 매장이 대다수였다.

1층 A 입점업체 점원은 "운영 중단 이후에도 계속 영업할 방침"이라며 "지난번 운영 중단 당시 타격이 컸지만 그래도 손님이 아주 없는 것만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반면 3층 B 입점업체 점원은 "운영 중단 때 매장 운영이 의미 없을 정도로 손님이 없었다"면서 "이번 운영 중단 소식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3층에 위치한 세탁소를 이용하기 위해 방문한 정모씨는 "이곳 세탁소가 가까워서 계속 이용해왔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주차장에도 차량이 적지 않았지만 모두 쇼핑객의 차량인 것은 아니었다. 상품을 구매할 목적 없이 주차장만 이용하는 방문객도 있었다.

홈플러스는 지난 7월 전 점포 운영을 중단한 뒤 8월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을 수혈해 가까스로 일부 점포를 다시 열고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재개장 직후 100억원을 웃돌았던 일매출은 최근 20억원대까지 떨어졌다. 유동성 압박으로 납품 거래 정상화가 지연된 데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추석 특수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자금난이 심화했다.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조차 어려워지면서 11월 초 일부 매장이 먼저 문을 닫았다.

직원 급여도 체불됐다. 홈플러스는 지난 20일에야 8월분 급여 지급을 완료했지만 9~11월분 급여와 명절 상여금은 여전히 체불 상태다. 지난달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나 퇴직 예정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경영 사정의 변경'을 이유로 관련 절차를 전면 취소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